

아나키즘의 부활

노 윤 래 | 전 한전원자력연료(주) 사장



서울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한국원자력연구소 연구관
한국전력공사 근무(1966~1994, 최종직위: 영광원자력본부장)
한전원자력연료(주) 근무(1994~2000, 최종 직위: 사장)
서울대, 한양대 강사 역임

일반적으로 아나키즘(An-archism)은 ‘무정부주의’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없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조화는 법에 순종하거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과 소비를 위해 자유롭게 이루어진 다양한 그룹과 지역, 직업 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얻어진다고 아나키스트는 말한다. 이로 인해 아나키스트는 ‘천진난만한 꿈의 옹호자’ 또는 ‘혼란한 설교자’란 비난을 받기도 한다.

아나키즘이란 용어는 고대 그리스의 호머(Homer)가 ‘지도자 없는’ 의미로 사용한 아나키(An-archie)가 시초인데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프랑스 혁명 때부터이다. 혁명 기간 중에 법은 실행되지 않고, 권위는 무너지고, 범죄도 처벌되지 않고, 재산은 약탈당하고, 도덕은 타락하고, 정의도 없고, 정부도 없는 혼란한 상태가 된 사회상을 두고 아나키란 말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오늘날 아나키즘의 참뜻은 ‘정부가 없는 사회에서의 생활과 행동에 관한 원칙 또는 이론’이라고 정의한 러시아의 크로포트킨(Peter Kropotkin)에 따른다.

아나키스트 학파의 철학은 하나의 공통된 가설, 즉 자연론에 기초한 사회관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자유와 사회적 조화 속에서 살 수 있는 속성을 갖는다면서 권위의 상징인 국가와 정부에 대한 혐오감을 나타내며 상호 부조, 소박한 삶, 직접 참여 등을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크로포트킨은 그의 저서인 『근대과학과 아나키즘(Modern Science and Anarchism)』에서 아나키스트의 이상은 사회가 법이나 권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구성원 사이의 상호 동의, 사회적 습관, 전통 등에 의해 자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며, 인간이 인간을 지배하는 정부를 거부할 뿐 아니라 모든 가식이나 형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발적 질서’ 이론이 아나키즘의 핵심이란 뜻이다.

아나키즘에는 본능적인 저항의 기질이 있는데 19세기 말 프랑스의 세바스티앵 포르(Sebastien Faure)는 “권위를 부정하고 그것과 싸우는 자는 누구나 아나키스트이다”라는 말을 했는가 하면, 알렉스 콤포트(Alex Comfort)는 “저항과 불복종은 야만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명제를 남기고 있다.

그렇다면 아나키스트의 현실적인 사회 인식은 어떤가? 무엇보다 국가 존재론, 윤리적 정당성의 문제를 아나키스트는 제기한다. 프랑스의 프루동(P. J. Proudhon)은 박물관으로 보내져야 마땅한 통치 기구의 제거가 자유로운 이성을 가진 자의 첫째 의무라고 말하면서 감시당하고, 검문 당하고, 밀고 당하고, 단죄를 받는 통치 기구(무자격, 부도덕자에 의한)를 비난한다. 국가 폐지를 주장하는

점에서는 ана키즘이 마르크스주의와 같으나 러시아의 바쿠닌(M. Bakunin)은 “프롤레타리아가 국가를 장악하면 공산주의 혁명을 영속시키고 또 다른 국가를 형성한다”라고 말하면서 마르크스주의를 극력 반대한다.

둘째, ана키스트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 바쿠닌은 “대의 제도는 민중을 통치하기 위한 또 다른 귀족 정치의 존속을 창출하고 유지시킨다”라고 말하면서 대의 제도가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의 표본임을 지적한다. ана키스트는 인민의 주권보다는 개인의 주권을 우선한다는 입장이다.

셋째, ана키스트는 권위주의적 사회주의를 반대한다. 독일의 슈티르너(M. Stirner)는 “사유재산의 폐지로 공산주의는 나를 타인에게 종속토록 만들고 사회라는 전체성 아래 종속토록 만든다”라고 하면서 20세기 공산주의 세계에서 사회주의의 권위주의를 볼 수 있음을 지적한다.

넷째, ана키스트는 사회의 불평등을 공격한다. 영국의 고드윈(W. Godwin)은 기회 균등의 보장을 적극 주장하는데, 그는 개인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대우는 차등할 수 있으나 개인에 주어진 기회의 평등은 불가침의 원칙이란 주장이다.

아나키스트가 주장하는 실천 방법이 실패한 원인의 하나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청사진을 교의로 내세우는 것은 ана키스트의 충실한 자제가 아니라는 반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예로서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 철학에 의하면 혁명이 역사적 법칙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바쿠닌은 마르크스와 달리 혁명을 학설이 아닌 실천으로 생각한다.

20세기 전반에는 ана키즘이 현실과 괴리된 낭만주의로 비판되어 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68혁명을 계기로 학생들의 저항 운동과 신좌파 운동, NGO 운동이 강화되면서 ана키즘은 부활되고 있는데 이는 권위에 대한 저항과 불복종 사상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성격을 띄우고 있어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현대의 ана키즘은 공동체 운동, 생태 운동을 통해 부활되고 있고, 고전 ана키즘과 달리 이데올로기보다는 정치 철학으로, 또한 하나의 ‘삶의 양식(Way of Life)’으로 여겨지고 있다.

현대의 ана키즘이 테러와 폭력을 수반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밀러(David Miller)는 테러가 ана키즘의 고유한 특성이 아님을 강조한다. ‘시민적 불복종’에서 비폭력적 행동의 전례를 볼 수 있는데 간디의 ‘소금의 대행진’,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SCLC(남부 기독교 지도자회의)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ана키스트의 최대의 공헌은 그들의 교육관에 있다. 국가지상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공교육을 혐오하면서 ана키스트는 개인의 창의력을 복돋는 개인 교육의 우월성을 주장한다. 다양성의 추구,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의 반대를 고드윈과 톨스토이는 극력 주장한다. 교육과 생활의 조화가 특징인 자유 교육의 실천을 강화하고 국가의 존재론, 윤리 문제가 교육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ана키스트의 교육관이 현실과 다소 괴리된 감이 있으나 그들은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아닌 현대의 양자역학 패러다임이 과학의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듯이 카오스 이론의 ‘나비 효과(Butterfly Effect)’를 기대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미미한 행동(날개짓)이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거대한 태풍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활성화는 물론 의학, 농학, 공학, 생물학 등 모든 과학 기술 분야를 포함, 고고학, 역사학 등 사회학 분야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ана키즘의 정신이 필요할 듯하다. ☸

정부가 없는 사회에서 구성원들의 조치는 법에 순종이거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과 소비를 위해 자유롭게 이루어진 다양한 그룹과 지역, 직업 간의 자유로운 동의에 의해 얻어진다고 ана키스트는 말한다.

원자력 발전의 활성화는 물론 의학, 농학, 공학, 생물학 등 모든 과학 기술 분야를 포함, 고고학, 역사학 등 사회학 분야에서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데 ана키즘의 정신이 필요할 듯하다.